

《통화론적신자유주의》 경제리론의 반동성

정 광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는 생산이 오르내리며 몇해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법칙적현상이며 자본주의경제의 본질적결함입니다.》

(《김일성전집》 제56권 367페이지)

부르조아경제학자들과 제국주의반동들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극도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어용리론들을 조작해내어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현시기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정책의 리론적기초로 되고있는 《통화론적신자유주의》 경제리론(일명《통화주의》)은 공황, 인플레이, 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경제적모순들을 제국주의국가의 《적절한 경제정책》에 의하여 극복할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경제리론으로서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들에 의해 1970년대말에 조작되어 대대적으로 류포되였다.

《통화론적신자유주의》 경제리론은 본질에 있어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은폐된 변호론으로서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한 류파이다.

《통화론적신자유주의》의 대표자는 미국의 반동적인 시카고학파의 우두머리인 프리드먼(1912-2006)이며 그의 대표적책으로는 《자본주의와 자유》(1960), 《가격론》(1976), 《화폐정책의 역할》(1979)이 있다.

《통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은 무엇보다먼저 재생산과정에서 화폐가 노는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에 기초하여 현대제국주의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문제로 나서고있는 인플레이, 공황, 실업 등에 대한 궤변적이고 반동적인 견해들을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은 우선 경제발전과정에서 《화

폐의 비상한 중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은 공황이나 인플레이와 같은 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서 통화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면서 은행이 현금잔고액에 대한 조절을 잘하면 화폐류통속도가 안정성을 가지며 이러한 조건에서 류통되는 화폐량의 변동을 장기간 고찰하여보면 그것의 장성 혹은 감소가 상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 또는 축소와 동일한 변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류통되는 화폐량의 변동이 마치도 현대제국주의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문제로 나서는 인플레이, 실업과 공황 등의 문제를 규제하는듯이 주장하였다.

《화폐의 비상한 중요성》에 대한 프리드먼의 견해는 완전히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것이다. 물론 화폐는 상품류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산조건보장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화폐는 생산의 직접적요인은 아니며 따라서 생산령역에서 규제적인 작용을 할수 없는것이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류통되는 화폐량과 화폐의 류통속도는 안정성을 가지고 변동되는것이 아니라 경기순환의 국면에 적지않게 의존한다. 공황시기에는 통화량과 화폐의 류통속도가 경기순환의 전 주기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호경기시기에는 상품류통의 장성과 그 속도가 높아지는것으로 하여 통화량이 늘어나고 화폐류통의 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통화량과 그 속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경기순환은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형태사이의 모순과 그에 기초한 일련의 모순들을 반영한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경기순환과 통화의 량 및 그 속도

의 관계가 외곡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상품실현에서의 난관이 조성되어 불경기와 공황이 발생하고 수요가 적은것이 자본주의경제의 기본모순에 기초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마치도 통화량이 적고 통화속도가 낮는데 있는것처럼 보이는것과 관련된다.

《화폐의 비상한 중요성》에 대한 프리드먼의 견해는 외곡되어 나타나는 경제현상의 본질을 가리우고 생산과 유통에서 노는 화폐의 역할을 그릇되게 평가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프리드먼은 또한 기만적인 《반인플레이》 구호를 요란스럽게 제창하면서 인플레이에 대한 꾀변을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은 신용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화폐에 대한 실제적수요보다 더 많은 화폐를 그 유통분야에 방출시켰기때문에 인플레이가 발생한것으로 보면서 그것이 이러한 현상을 허용한 정부의 《부당한》 신용화폐정책의 결과인듯이 주장하였다. 그는 인플레이를 막기 위하여서는 신용기관들의 자의적인 과도한 화폐유통을 제한할수 있도록 높은 할인율을 설정하여 신용을 극력 줄여야 하며 국가가 이러한 방향에서 신용화폐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은 경기상태와는 관계없이 화폐공급의 장성속도를 년간에 3~5%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폐공급량장성의 불변속도원리》를 내놓았으며 이것이 마치도 제국주의국가의 경제정책의 관건적문제로 되는듯이 떠벌였다.

《통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은 저들의 꾀변을 합리화하려는 목적밑에 자본주의경제를 현실적경제부문과 화폐적경제부문으로 구분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대인플레이》에 대한 리론을 조작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현실적경제부문이란 시장경기에 기초하여 생산 및 고용의 규모, 가격수준 등에 대한 결심을 자의적으로 채택하는 자본가들의

지배밑에 있는 부문이며 화폐적경제부문이란 시장체계의 이러저러한 화폐적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의 지배밑에 있는 부문을 말한다.

그들은 현실적경제부문에서 자본가들이 《기대인플레이》를 제기한다고 떠벌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대인플레이》라는것은 자본가가 시장에서 《결심채택》하는것을 도와주고 최대의 리익을 얻으려는 자본가의 가격동태에 대한 주관심리적예언을 말한다.

그들은 현실적경제부문에서는 현실적인 인플레이가 《기대인플레이》로 전환되지 못하고 다만 그에 필요한 전제가 조성되며 화폐적경제부문에서는 국가에 의한 통화량의 조절에 의해서만 《기대인플레이》가 이루어질수 있는듯이 설교하였다.

인플레이에 대한 프리드먼의 견해는 완전히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인플레이는 지폐람발의 결과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자본주의화폐유통의 혼란상태로서 그 사회경제적근원의 하나는 경제의 군사화를 비롯한 제국주의국가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경제정책에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의 발생을 단순히 신용기관의 부당한 자의적인 행동의 산물로 묘사하는것은 그 사회경제적근원을 가리우는것으로서 반동적인것이다. 또한 불변적인 통화량의 장성속도를 장기간 보존하고 통화량의 《조절》을 위한 국가의 신용화폐정책의 실시를 통하여 인플레이를 없앨수 있다는 주장은 통화량이 경기순환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부인하고 제국주의나라들에서 마치도 인플레이를 없앨수 있는듯 한 환상을 조성하는 기만적이며 꾀변적인것이다.

제국주의경제를 현실적경제부문과 화폐적경제부문으로 구분한 《통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국가의 신용화폐정책을 절대화하고 마치도 그것이 재생산과정을 규제할수 있는듯이 묘사하는 반동적인것이다.

프리드멘은 또한 경제공황에 대한 반동적인 궤변을 주장해나섰다.

그는 통화적요인들이 재생산과정을 규정하는듯이 묘사하면서 화폐적대책의 《지체성》에 대하여 떠벌였다. 그가 말하는 《지체성》이라는것은 그 어떤 경제적대책과 그것의 효과사이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게 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 어떤 경제적대책을 재생산과정에 적용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요구되는것만큼 경제적대책의 방향이 변화되는 경우 그 결과가 경기변동에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걸린다는것이다.

그들이 《지체성》에 매달리는 목적은 경기순환과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수 있게 함으로써 통화량의 변동이 재생산과정을 규제한다는 견해의 기만성을 가리우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호경기의 초시기에 존재하는 화폐류통량의 장성은 그 후파가 인차 드러나지 않고 일정한 기일이 지나서 나타나는것만큼 다음 경기변동과 인플레이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되게 되며 통화량의 장성속도의 단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의 공황의 원인으로 되게 된다.

이것은 《지체성》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통화량의 변동과 신용화폐정책이 재생산과정을 규제하는것으로 보는 궤변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통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은 화폐정책의 《지체성》을 가지고 경제공황이 마치도 통화량의 불충분한 공급의 산물인듯이 묘사하였으며 통화량이 합리적으로 《조절》되기만 하면 공황이 없어질수 있는듯이 떠벌였다.

경제공황에 대한 《통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그 발생의 원인을 외곡하고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공황을 없앨수 있는듯한 환상을 조성하려는 반동적인것이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공황의 기본원인은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생산물점유의 사

자본주의적형태사이의 모순에 있다. 그러므로 통화량의 《조절》이 결코 이 모순을 없앨수 없고 경제공황을 막을수 없다.

결국 경제공황의 원인이 통화량의 불충분한 공급에 있으며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만 하면 공황을 없앨수 있다고 하는 《통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날조된 궤변이다.

프리드멘은 또한 실업에 대한 반동적궤변을 들고나왔다.

프리드멘은 외부적요인들의 그 어떠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적응한 실업이 제국주의경제에서 가장 리상적인 실업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이 실업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것보다 자유시간을 얻는것이 노동자에게 더 유익한것으로 하여 생기는 《자발적실업》으로 되기때문이라는것이다.

프리드멘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압력》을 가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되고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지불을 비롯한 정부의 사회후생지출이 《증대》되는것으로 하여 순수한 노동시장이 쓸모없게 되었으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자동적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실업을 《자연적실업》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순수한 노동시장이 쓸모없게 된 조건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장기적균형에 가장 적합한것이라고 하였다.

실업에 대한 프리드멘의 견해는 그 발생과 장성의 원인을 가리우기 위한것으로서 반동적인것이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실업의 발생과 그 장성의 원인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착탈을 강화하여 더 많은 리윤을 얻어내려는 자본가들의 요구로부터 자본의 유기적구성이 높아지는데 있으며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을 희생시켜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실현하려는 제

국주의국가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경제 정책에 있다. 실업의 근본원인이 자본주의 제도자체에 있는것으로 하여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절대로 실업을 없앨수 없다.

《자발적실업》과 《자연적실업》에 대한 프리드멘의 설교는 생존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조들의 투쟁을 비방중상하고 극력 제한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것이며 몇푼 안되는 《실업보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금》마저 없애려는 독점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한것이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실업의 장성은 결코 노동시장에 대한 로조의 《압력》이나 국가의 《사회보장금》지출의 산물인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제도의 경제적모순의 발현이다.

《통화론적신자유주의》자들은 다음으로 《필요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프리드멘은 우선 국가가 경제활동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리드멘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규칙》이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대독점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억누르고 착취하여 더 많은 리윤을 짜내는데 유리한 《규칙》인것이다. 때문에 제국주의국가가 경제활동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을

내놓는다고 하여도 근로자들의 처지에서는 아무런 개선도 일어날수가 없다.

프리드멘은 또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제한된 간섭을 주장하면서 《복지제도》축소에 대한 일련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프리드멘은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에서 《복지제도》의 축소를 주장하여나섰다. 그는 과도한 사회적지출로 이루어지는 《복지제도》는 근로자들의 로동의욕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장성시킬뿐아니라 국가의 재정적자를 산생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과도한 사회적지출을 줄여 《복지제도》를 축소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실업과 같은 난문제들에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복지제도》를 축소하여 제국주의국가의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일데 대한 프리드멘의 설교는 제국주의국가들에서 더 많은 리윤추구를 노리는 독점자본가들의 요구를 대변한 반동적설교이다.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은 국가의 재정적자가 만연되고있는 속에서도 경제의 군사화를 계속 강행추진하고있다. 이러한 군사비지출은 대군수독점체들에게 막대한 리윤을 가져다주지만 재정적자의 근본원인으로 되고있다.